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경실

광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Impact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Moral Sensitivity on the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Kyong Sil Park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College of Health Welfar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자가 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3.0을 활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평균 연령 22.86 ± 3.63 세로 여학생이 72.9%를 차지하였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 가족 중에 의료관련 종사자가 있는 경우가 22.3%, DNR 교육을 받은 경우가 38.3%, DNR 경험이 있는 경우가 9.0%, CPR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29.8%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학년, 임상실습경험 유무, DNR 교육 유무, DNR 경험 유무, CPR 자격증 유무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는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순으로 나타났다.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만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research to confirm the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good death perception, and moral sensitivity on the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187 nursing students.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measure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good death perception, moral sensitivity, and attitude toward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3 program. The average age was 22.86 ± 3.63 years, and 72.9% of the subjects were femal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was 52.1%, health care worker in the family was 22.3%, DNR education 38.3%, DNR experience 9.0%, and CPR license 29.8%. The predictive variable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biomedical ethics awareness, good death perception, and moral sensitivity. We recommend systematic education that will promote biomedical ethics awareness, good death perception, and moral sensitivity in order to establish one's own attitude toward th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n ethical situation.

Keywords : Nursing Student,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Moral Sensitivity,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이 논문은 2022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ong Sil Park(Gwangju Univ.)

email: pks2022@gwangju.ac.kr

Received June 2,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July 5,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연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1]. 연명치료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자연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생명연장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2,3]. 2009년 ‘김 할머니 사례’의 발생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4], 2018년 2월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5].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환자와 가족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의사결정을 돕는 옹호자, 상담자, 전문가로서[6] 윤리적 책임 의식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요구받는다[7]. 이에 따라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며,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5,7].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윤리적 문제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의료인들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맞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8].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윤리적 가치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알지 못해 임상실습을 하면서 환자의 권리 침해, 치료 불이행, 죽음 및 임종과정 등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7,9,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에게도 확고한 생명의료 윤리적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2].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6,11,12]. 하지만,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5]도 있어 추가연구를 통해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좋은 죽음인식이란 죽음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 자율성을 갖는 것, 인간으로서 가치와 신념이 존중되어 전인적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13].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 과정에서 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환자를 옹호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통해[14], 좋은 죽음인식이 환자의 말기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5]. 임종단계의 환자의 좋은 죽음을 위해서 간호사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며, 임종환자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죽음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6]. 이를 위해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인식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15].

도덕적 민감성은 실제상황에서 도덕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17] 윤리적 의사결정의 선행요인이며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개인적 자질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18].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6]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19]. 나아가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정도가 높았으며[6] 이는 환자의 좋은 죽음에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증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18].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병원환경에서 윤리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민감한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을 파악하고 도덕적 민감성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5,6,11,12], 좋은 죽음인식[5,11,20], 도덕적 민감성[6,21] 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간호대학생이 추후에 간호전문직 수행 시 연명치료에 대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를 파악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환자의 존엄성 및 가치를 존중하고 자신만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갖추어 윤리문제 및 갈등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할로서 간호대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 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산정한 결과 표본크기는 178명이었으나 20%의 탈락율을 고려하여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18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무응답 설문지 2부를 제외한 총 187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생명과 연관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8]. 본 연구에서는 이영숙[22]이 개발한 윤리적인 가치관 도구를 권선주[23]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의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49문항으로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선주[23]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2.3.2 좋은 죽음인식

좋은 죽음인식이란 죽음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 자율성을 갖는 것, 인간으로서 가치와 신념이 존중되어 전인적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Schwartz 등[24]이 개발한 도구를 정현숙[25]이 수정·보완한 좋은 죽음인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7문항으로 임상증상 5문항, 통제감 3문항, 친밀감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현숙[25]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6이었다.

2.3.3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은 특정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도덕적, 윤리적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회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이다[6]. 본 연구에서는 Lutzen 등[26]이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도구를 Han 등[27]이 수정한 한국형 도덕적 민감성(K-MSQ)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환자 중심 간호, 전문적 책임, 갈등, 도덕적 의미, 선행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27]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6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3이었다.

2.3.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과다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28]에 대한 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계선[29]이 개발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도구를 변은경 등[28]이 수정·보완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9문항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은경 등[28]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8이었다.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총 15일간 이루어졌으며 J시 간호대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

를 받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 도중 언제든지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정보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만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확립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됨을 추가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이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파일에 비밀번호를 생성하며 연구 종료 후 모든 연구자료는 복원되지 않도록 삭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참여동의서 및 설문지는 온라인을 통해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이 끝난 설문지와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았다.

2.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의 Stepwise 방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2.86 ± 3.63 세였다. 성별은 여학생 72.9%, 남학생 27.1%로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2학년 29.8%, 4학년 24.5%, 1학년 23.4%, 3학년 22.3% 순으로 많았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이었고 가족 중에 의료관련 종사자가 있는 경우는 22.3%, 심폐소생거부(Do Not Resuscitate, DNR) 교육을 받은 적이있는 경우가 38.3%, DNR 경험이 있는 경우가 9.0%.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29.8%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8)

Variables	Category	n(%) or M±SD
Age(yr)		22.86±3.63
Gender	Male	51 (27.1)
	Female	137 (72.9)
Grade	1	44 (23.4)
	2	56 (29.8)
	3	42 (22.3)
	4	46 (24.5)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98 (52.1)
	No	90 (47.9)
Health care worker in family	Yes	42 (22.3)
	No	146 (77.7)
DNR education	Yes	72 (38.3)
	No	116 (61.7)
DNR experience	Yes	17 (9.0)
	No	171 (91.0)
CPR license	Yes	56 (29.8)
	No	132 (70.2)

DNR: do not resuscitate,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3.2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8 ± 0.25 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하위영역은 신생아 생명권이 3.32 ± 0.47 점이었고,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뇌사가 2.61 ± 0.33 점으로 나타났다. 좋은 죽음인식의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2 ± 0.33 점이었다.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평균 5.29 ± 0.57 점으로 하위영역에서는 환자중심간호가 5.64 ± 0.82 점으로 가장 높

Table 2. Level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Perception of Good Death, Moral Sensitivity, and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188)

Variables	Category	M±S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2.88±0.25
	Right to life of fetus	2.91±0.68
	Artificial abortion	2.63±0.46
	Artificial insemination	2.77±0.56
	Prenatal diagnosis of fetus	2.93±0.39
	Right to life of newborn	3.32±0.47
	Euthanasia	2.90±0.47
	Organ transplantation	3.09±0.44
	Brain death	2.61±0.33
Perception of Good Death		3.22±0.33
		3.32±0.47
		2.90±0.47
		3.09±0.44
		2.61±0.33
		2.91±0.36
		3.22±0.33
		5.29±0.57
		5.64±0.82
Moral sensitivity		5.29±0.57
	Patient-oriented care	5.64±0.82
	Professional responsibility	5.50±0.67
	Conflict	5.21±0.89
	Moral meaning	4.66±1.02
	Benevolence	5.35±0.76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3.41±0.46

왔고, 도덕적 의미가 4.66 ± 1.02 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1 ± 0.46 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경험 유무, DNR 교육 유무, DNR 경험 유무, CPR 자격증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1세 이하인 그룹보다 22세 이상인 그룹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27$, $p=.024$), 1

학년보다 4학년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89$, $p=.010$).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그룹이($t=2.35$, $p=.020$), DNR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DNR 교육을 받은 그룹이($t=2.75$, $p=.007$), DNR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DNR 경험이 있는 그룹이($t=2.81$, $p=.005$), CPR 자격증이 있는 그룹이($t=2.55$, $p=.01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좋은 죽음인식($r=.19$, $p<.001$), 도덕적 민감성($r=.2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r=-.06$,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좋은 죽음인식은 도덕적 민감성($r=.44$, $p<.0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r=.20$,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덕적 민감성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r=.22$,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3.5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주요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연령, 학년, 임상실습경험 유무, DNR 교육 유무, DNR 경험 유무, CPR 자격증 유무 변수와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을 독립변수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의 Stepwise 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산 팽창지

Table 3. Level of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8)

Variables	Category	M±SD	t or F(p)
Age(yr)	≤ 21	3.32±0.40	-2.27 (.024)
	≥ 22	3.47±0.49	
Gender	Male	3.44±0.50	0.47 (.640)
	Female	3.40±0.45	
Grade	1 ^a	3.23±0.51	3.89 (.010) a<d
	2 ^b	3.42±0.42	
	3 ^c	3.45±0.48	
	4 ^d	3.54±0.40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49±0.46	2.35 (.020)
	No	3.33±0.46	
health care worker in family	Yes	3.45±0.44	0.57 (.570)
	No	3.40±0.47	
DNR education	Yes	3.53±0.45	2.75 (.007)
	No	3.34±0.46	
DNR experience	Yes	3.71±0.58	2.81 (.005)
	No	3.38±0.44	
CPR license	Yes	3.54±0.46	2.55 (.011)
	No	3.36±0.46	

DNR: do not resuscitate,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4. Correlation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Perception of Good Death, Moral Sensitivity, and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188)

Variable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Recognition of good death	Moral sensitivity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	r	r	r
Biomedical ethics awareness	1	0.19**	0.26**	-0.28**
Recognition of good death	0.19**	1	0.44**	0.20**
Moral sensitivity	0.26**	0.44**	1	0.22**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0.28**	0.20**	0.22**	1

**p<.001

Table 5.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188)

Variables	β	t	p
Biomedical ethics awareness	-0.38	-5.52	<.001
Perception of Good Death	0.25	2.21	.028
Moral sensitivity	0.16	3.33	.001

Adj. R²=0.183, F=14.932, p<.001

수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모두 10 이하였고, 공차 한계는 모두 0.10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Durbin-Watson 역시 기준값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주요한 영향 요인은 생명의료윤리의식($\beta = -0.38$, $p < .001$), 좋은 죽음인식($\beta = 0.25$, $p = .028$), 도덕적 민감성($\beta = 0.16$,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183으로 설명력은 18.3%이었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학년, 임상실습 경험, DNR 교육, 가족 및 지인의 DNR 경험, CPR 자격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가 1학년은 3.23점, 4학년은 3.54점으로 높은 학년일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선행연구[30]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학생들에 비해 실제적으로 다양한 윤리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DNR 교육을 받은 경우, CPR 자격증이 있는 경우, 가족 및 지인의 DNR 시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다. 이는 DNR 교육 또는 가족 및 지인의 DNR 시행 경험과 CPR 자격증 유무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DNR과 관련된 경험 유무가 연명치료중단

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11]. DNR 교육 및 CPR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간접적으로 DNR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러한 윤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8점으로 선행연구[31,32]의 점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 영역에서 신생아 생명권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정혜선[33]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이는 환자의 연명이 낮을수록 생명의 종결을 인정하는 것이 쉽 으며 연명이 높을수록 무의미한 죽음의 연장보다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연구결과[34]를 뒷받침한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은 뇌사로 선행연구 결과[35]와 동일하였다. 뇌사는 장기이식과 더불어 계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뇌사라도 인간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타인에게 부여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좋은 죽음인식의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2점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은정과 정혜선 연구[5]의 좋은 죽음인식 점수 3.24점, 조은아[36]의 점수 3.28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강은희와 김미영[37]의 연구결과는 3.08점으로 나타나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비해 다소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은희와 김미영[37]의 연구 시기가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및 시행 이전인 2017년도 조사한 결과로, 좋은 죽음과 연명치료 등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도덕적 민감성의 평균은 7점 만점에 5.29점으로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도덕적 민감성 점수 4.51점[18] 또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점수 4.70점보다 [38] 도덕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의 간호사로의 책

임을 느끼게 되는데[39]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환자중심간호가 5.64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덕적 의미가 4.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와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40]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어 환자중심간호 영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좋은 죽음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41]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도덕적 민감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영미와 안은경[6]의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동일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나타냈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의무주의적 성향이 강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중요시 하여[42]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영미와 안은경[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12]나 두 변수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5]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장영미와 안은경[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최은정과 정혜선[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 4학년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1~4학년이 모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임상실습경험을 한 경우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임상실습경험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위영역에서 장영미와 안은경[6]의 연구는 안락사와 뇌사가 가장 낮은 점수를, 최은정과 정혜선[5], 김은영[12]의 연구 및 본 연구결과는 인공임신중절, 뇌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분포하고 있어 하위영역의 차이로 인해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가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경험, 학년,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위영역을 세분화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좋은 죽음인식과 도덕적 민감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좋은 죽음인식이 높게 나타난 김희숙과 김경아[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좋은 죽음인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좋은 죽음인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5,20,21]와 동일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치와 신념이 존중되어 전인적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13]. 간호대학생은 교육 및 실습을 통해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생명연장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덕적 민감성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병원환경의 도덕적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여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환자의 존엄성 및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병원환경의 윤리 도덕적 문제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결국 향후 임상에서의 대상자 간호의 질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겠다. 지식은 태도 및 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43]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지식을 향상시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만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전문적인 간호사의 전단계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의료 환경의 윤리적 문제 및 갈등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일개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연령, 학년, 임상실습경험 유무, DNR 교육 유무, DNR 경험 유무, CPR 자격증 유무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 순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도덕적 민감성 점수가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았으므로 다양한 지역 및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식이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여 태도와 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은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만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 죽음인식,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고, 이를 지속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체계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S. M. Kim, K. S. Kim, I. S. Lee, S. Y. Kim, "Perception towards advance directives, hospice-palliative care,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the middle aged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37, No.1, pp.21-44, 2013.
- [2] B. H. Kong, "Nursing Ethics", Seoul: Hyunmoon, 2018.
- [3] N. J. Je, J. S. Hwa, "Factors Influenc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ertiary General Hospital Workers -Knowledge and Attitude of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wareness of Death, Knowledge and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21, No.3, pp.92-103, 2018.
DOI: <http://dx.doi.org/10.14475/kjhpc.2018.21.3.92>
- [4] S. M. Kim, I. S. Lee, S. W. Hong, "Clinical Nurses' Knowledg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End-of-life Care",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24, No.4, pp.501-518, 2021.
DOI: <https://doi.org/10.35301/KSME.2021.24.4.501>
- [5] E. J. Choi, H. 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275-284,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5.275>
- [6] Y. M. Jang, E. K. Ahn, "The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7, No.2, pp.53-61, 2019.
DOI: <https://doi.org/10.22678/JIC.2019.17.2.053>
- [7] G. E. Lee, S. H. Park, H. J. Lee,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of Nursing Ethics Research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2011-2020)",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24, No.1, pp.59-80, 2021.
DOI: <https://doi.org/10.35301/KSME.2021.24.1.59>
- [8] S. H. Ahn, "Quantitative Analysis of Ethics Research within the Korean Nursing Community",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2, No.3, pp.261-274, 2009.
- [9] Y. G. Noh, M. S. Jung, "A Study of Moral Judgment and Ethical Decision Making and Ethical Dilemmas Experienced in Practice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2915-292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915>
- [10] M. E. Carmeron, "Value, be, do: guidelines for resolving ethical conflict", *Journal of Nursing Law*, Vol.6, No.4, pp.15-24, 2000.
- [11] K. N. Kim, E. H. Kang, M. Y. Kim, "Factors Influencing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3, pp.429-43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3.429>

- [12] E. Y. Kim, "Effects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9, pp.453-463,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9.453>
- [13] H. J. Cheon, *Nurses'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 Master's thesis, Busan Catholic University, Busan, Korea, pp.60, 2018.
- [14] E. S. Choi, *Nurse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Their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aster's thesi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Korea, pp.48, 2015.
- [15] J. Y. Shim, *Influence of Good Death Awareness, Terminal Care Attitude and Stress on Performance of Terminal Care in Nurses*,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pp.100, 2019.
- [16] E. J. Lee, *Influence of Nurses' Advance Directive Knowledge, Good Death Awaren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ir Attitude of Life-Sustaining Withdrawal*,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Chungju, Korea, pp.113, 2020.
- [17] Y. S. Song, J. Y. Le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2, pp.157-166, 202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20.26.2.157>
- [18] E. A. Kim, H. Y. Park, S. E. Choi,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7, No.2, pp.144-158, 2014.
DOI: <http://dx.doi.org/10.35301/ksme.2014.17.2.144>
- [19] H. Kim, K. Kim, "Effects of Perception of Death,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Moral Sensitivity on the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s of Clinical Nurses", *Health & Nursing*, Vol.32, No.2, pp.29-37, 2020.
DOI: <http://dx.doi.org/10.29402/HN32.2.4>
- [20] S. A. Yang,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2, pp.226-235,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2.226>
- [21] S. Y. Choi, K. H. Kim,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Knowledge of Advanced Directives, Good Death Perception on Nurses' Attitudes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 General Hospital",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23, No.2, pp.120-131, 2020.
DOI: <http://dx.doi.org/10.7587/kjrehn.2020.120>
- [22]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0, No.2, pp.249-270, 1990.
- [23] 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ong University, Daegu, Korea, pp.78, 2003.
- [24] C. E. Schwartz, K. Mazor, J. Rogers, Y. Ma, G. Ree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Vol.6, No.4, pp.575-584, 2003.
DOI: <https://doi.org/10.1089/109662103768253687>
- [25] H. S. Jeong, *Recognition towards Good death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an area*, Master's thesis, Busan Catholic University, Busan, Korea, pp.53, 2010.
- [26] K. Lutzen, M. Evertzon, C. Nordin, "Moral sensitivity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Nursing Ethics*, Vol.4, No.6, pp.472-482, 1997.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9700400604>
- [27] S. S. Han, J. Kim, Y. S. Kim, S. Ahn,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Nurs Ethics*, Vol.17, No.1, pp.99-105, 2010.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09349993>
- [28] E. K. Byun, H. R. Choi, A. L. Choi, K. H. Hong, N. M. Kim, et al., "An Investigative Research on the Attitude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on Terminating Life Suppor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9, No.1, pp.112-124, 2003.
- [29] G. S. Park, *The Study of consciousness of euthanasia among health professionals : Q-methodological Approach*,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pp.98, 2000.
- [30] S. S. Huh, "Influence of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1, pp.76-84,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76>
- [31] Y. H. Kwon, "Factors Influencing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3, No.2, pp.262-272, 2009.
- [32] H. S. Je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8, No.3, pp.401-410, 2011.
- [33] G. S. Jeong, "The Effect of Gender, Eth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Students in one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5672-5681,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72>
- [34] C. S. Park, *An attitude of the withholding treatment*,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pp.57, 2004.
- [35] W. Y. Choi, M. Y. Kim,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Regard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16, No.1, pp.1-9, 2012.

- [36] E. A. Cho, "Perception of Good Death, Knowledge and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among The Nursing Graduat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12, pp.624-638,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12.624>
- [37] E. H. Kang, M. Y. Kim, "Good Death, Self-Esteem, and Attitude to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4, No.1, pp.1-10, 2017.
- [38] O. H. Kim, S. A. Ahn, S. M. Oh, J. H. Kong, H. O.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9, pp.78-86,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9.078>
- [39] G. S. Jeong, "The influencing factor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Code of Nurses Ethics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1, pp.544-555,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544>
- [40] S. H. Hong, Y. H. Park, J. S. Moom, "Relationship between moral sensitivity and elderly nursing practice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Bioethics Association*, Vol.17, No.1, pp.75-87, 2016.
- [41] S. N. Kim, H. J. Kim, "Recognition of Good Death, Attitude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ttitude towards Euthanasia in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9, No.2, pp.136-144, 2016.
DOI: <http://dx.doi.org/10.14475/kjhpc.2016.19.2.136>
- [42] M. 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3, pp.382-392,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43] L. R. Fabrigar, R. E. Petty, S. M. Smith, S. L. Crites Jr, "Understanding knowledge effects on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the role of relevance, complexity, and amount of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0, No.4, pp.556-577, 200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0.4.556>

박 경 실(Kyong Sil Park)

[정회원]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22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광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행동, 신체활동, 좌식행동, 심혈관질환